눈밭에서 씽씽~ 자신감 쑥쑥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 폭발적 호응

"눈밭에 오니 너무 좋아요. 이제 씽씽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에서 열심히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조병삼(가명 · 25)씨가 스키장에서 신이 났다. 겨울 날씨 속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줄도 모르고 '선생님(스키강사)'이 시키는 대로 좌우 걸음마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붙었다며 멋쩍게 웃는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주시 스키협회(회장 최병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이 1월 26일 충북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스키는 흔히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경주시 스키협회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의기투합해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을 열었다.

관계자들은 막연히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라 좋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애인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적었던 스포츠를 접해서기도 하지만 아이들처럼 '눈'을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심적 욕구를 만족시켜서기도 하다.

직업재활훈련팀의 23세 이상 성인정신지체장애인 23명과 복지관 직원, 관련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 이번 스키체험교실은 경주시 스키협회 회원들이 장애인들에게 개인강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이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훈 직업재활팀장은 "장애인들은 근력이 약해 운동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키 체험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앞으로 스키협회 측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4)776-7522

배지선 · 김강진 기자

성인 정신지체장애인 23명이 참석한 제2회 경주 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이 1월 26일 충북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열렸다.

군포교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모임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50여명이 1월 15일 대구 동구 중대동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종 정토원(주지 고봉)에 모였다.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군사모, 회장 권순남) 신년 인사회가 마련 된 것. 회원들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인사도 나누었지만 밤이 깊도록 적극적인 군포교 활성화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봉 스님(오른쪽 두번째)과 '군사모' 회원들이 군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사모는 군포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군하사관 출신이었던 고봉 스님은 몇 년간 외로운 군 포교활동을 이어오면서 뜻이 있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회원은 모두 60여명.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청과시장 상인부터 예술가, 선생님 등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유독 군출신 회원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군인 출신이 10여명, 여군출신 회원도 10여명이나 된다. 그렇기에 더욱 군장병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

군사모는 지금까지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2군사령부 군포교 활동에 나갔다.

군사모 회원들은 올해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군포교활동을 펼치기로 중지를 모았다. 지원, 봉사, 홍보, 문화 등 4개팀으로 나눠 조직을 갖췄다. 지원팀은 군포교와 군장병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홍보팀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외부에 알리고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문화팀은 다양한 문화공연이나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군장병들을 위로하겠다고 결의했다.

고봉 스님은 "앞으로 우리불교계를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 한다"며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포교활동이 형식적인 포교가 아니라 실제 군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전국적인 군사모 모임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3)984-0409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1월 21일 거리탁발을 통해 모금된 성금 150여 만원을 본사 위영란 국장에게 전달했다.

남아시아돕기 거리탁발 펼쳐

(재)일붕선교종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 스님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

(재)일붕선교종 스님과 신도 100여 명은 1월 21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에서 서울 시가지를 돌며 남아시아 지진 피해돕기 거리탁발 행사를 벌였다. 청량리를 출발한 사부대중은 조계사에 도착한 후 모든 행사를 회향했고 거리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백47만780원을 본사에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명상의 집 삿상' 이경의 대표(오른쪽)가 1월 24일 본사 서정만 이사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종교 뛰어넘어 자비로 '하나'

'명상의 집 삿상' 본사에 500만원 기탁

명상수행단체 '명상의 집 삿상(대표 이경의)'이 1월 24일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구호지원 성금 500만원을 본사에 기탁했다. 명상의 집 삿상은 동안거를 맞아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에 추가 성금을 보태 구호기금을 마련했다.

대표 이경의씨는 "종교를 뛰어넘어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예기치 않게 재난을 입게 된 남아시아 불교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20~26일)

강미경 30만원 최삼선천왕 30만원 이경주 10만원 송영혜 20만원 김정숙 2만원 화성 신흥사 100만원 감지한의원 10만원 정영님 1만원 반정우 3만원 권종옥 2만원 김수미 10만원 안산광명사신도일동 30만원 선정사오영진 30만원 장율환 1만원 신종희 20만원 김수필 100만원 김은정 20만원 이우경 10만원 에이전시 보리수 10만원 금오손상좌문도회 500만원 선본사대중일동200만원 선본사 100만원 산타마 30만원 김영돈,김종현,김성현,김민경 40만원 오승혁 5만원 예재홍 3만원 임원숙 2만원 의왕정림사 88만3000원 도은희 3만원 정명순 2만원 영원사 10만원 봉덕사 30만원 만호사 20만원 박미정 1만원 선운사 10만원 유일사 10만원 김경렬 8만원 종수 3만원 보륜사 100만원 금화사김옥자 50만원 황순자 10만원 선운사 2000만원 박순진10만원 관음정사남경 2만원 관음정사남진 2만원 청량사 30만원 서연하 65만5000원 영천포교당30만원 성불원 30만원 현풍도성암 60만원 이현경 2만원 의성석불사 100만원 최광주3만원 약수선원 46만8000원 신광사주지 20만원 임완숙 10만원 이희숙 3만원 삼각산문수사혜정스님 50만원 본원사 67만3000원 구리정각사선근스님 100만원 (사)맑고향기롭게 2000만원 송광사서울분원 길상사 500만원 임옥자10만원 박수길 3만원 원각회 100만원 김민자 2만원 김동례 10만원 호압사 316만5500원 실천불교 1000만원 스리랑카불자연합 100만원 임현철 15만원 대한불교청년회 204만2720원 마포석불사대중및 신도회 300만원 울산금강사 50만원 화림사 37만5000원 사자암 50만원 함월사신도일동 103만원 약사사(법정) 50만원 보문사 15만원 법장사 50만원 화암사 5만원 대한불교청년회 204만2720원 심주완 5000원 임현철 15만원 시흥법련사 20만원 이현덕 1만원 봉정숙 13만원 구룡사 50만원 권예중 3만원 위성복 1만원 박명보 10만원 이선순 10만원 동명희 5만원 대한불교조계종원우회2차성금 43만9700원 보살님 8만1310원 보은사 30만원 마포석불사 대중및신도회 300만원 진신생 5만원 반야암(박민자) 10만원 인천영덕사 50만원 김성희(해운화) 10만원 10교구불굴사이광희 96만4480원 영남불교대학관음사 753만9690원

(총 111,309,400)

누적금액 581,642,425원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도와주세요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중인 최재승 군

"체격도 좋고 너무나 건강했던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을 줄이야…."

지난해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재생불량성빈혈로 치료받고 있는 최재승(18)군의 상태를 전하며 어머니 박숙희(39)씨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중학교 때부터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며 감기 한번 제대로 앓은 적 없었던 재승이가 2004년 5월 '급성 상세불명 무형성빈혈'로 진단받아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했던 재승이는 현재 6개월간의 면역치료를 견디고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골수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은 여동생과 골수가 맞지 않아 타인에게서 맞는 골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재승이의 수술비, 치료비는 모두 경기도 이천에 혼자 거주하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아버지 최영일(43)씨의 몫이다. 하지만 최씨의 소득 170만원은 가족 생활비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이미 집을 담보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재승이의 치료비로 쓰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어려워도 아이를 위해선데 어떡하나요. 아이만 일어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익산불교대학에서 불심을 키운 부부는 아이가 다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를 꿈꿀 수 있도록 매일 기원하고 있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성금

윤선애- 10,000원 김석양 75,000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서춘건 강언순 박혜리 변수진 정조현- 합 745,000원

총 누적금액: 36,632,83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